

LEE YOUNG IN

GALLERY**HAS**





LEE YOUNG IN

GALLERY**HAS**

www.galleryhas.com

Existence

SOLO EXHIBITION: LEE YOUNG IN SEP 28 – NOV 2, 2024



Existence, 50 x 50 cm, Acrylic on canvas, 2024

010-7471-8037

www.galleryha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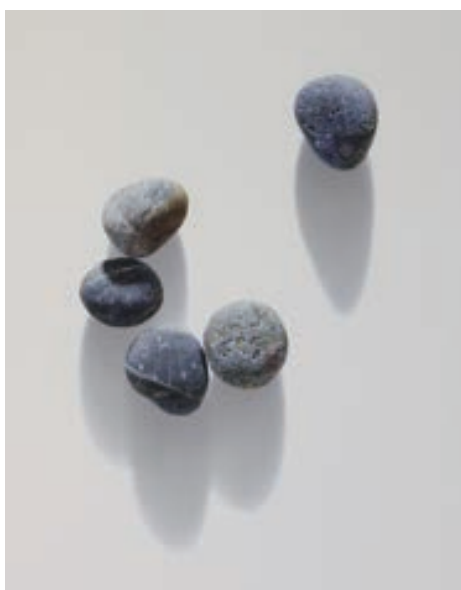
galleryhas3@gmail.com

48099 30, Dalmaji-gil, Haeundae-gu,
Busan, (30511) LCT Poodium-dong



GALLERY**HAS**

ART BUSAN



Existence_Acrylic on canvas_90.9 x 72.7 cm, 2025



Dedication (02)_Oil on Wood_80 x 60 x 6 cm/mR_85 x 65 x 6 cm, 2019/20

Lee Young In

Jochen Schambeck

부산 벅스코 제 1전시장 1&2홀

Booth. D14

GALLERYHAS

galleryhas3@gmail.com

+82 10 7471 8037

48099

30, Dalmaji-gil, Haeundae-gu, Busan (3051) LCT Ppodium-dong, Republic of Korea



ART BUSAN

VIP PREVIEW

2025년 5월 8일(목)
14:00 ~ 19:00

5월 9일(금) - 5월 10일(토)
11:00 ~ 19:00

일반

5월 9일(금) - 5월 10일(토)
13:00 ~ 19:00

5월 11일(일)
11:00 ~ 18:00

PRESENTING

Lee Young In
Jochen Schambeck

GALLERY**HAS**

이영인 b. 1973~

2000년대 도불

현재 파리에서 작업 중

경기 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몽펠리에 시립 미술학교 회화 전공

극사실적인 묘사로 자연물 돌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이영인 작가는 자연에서 돌의 미적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화면에 그대로 담아낸다. 자연의 힘으로 형성된 돌은 아주 오랫동안 지구의 변화와 역사를 함께 해오며 각각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다양한 모양과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변화해 온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듯 하다. 그의 극사실적인 묘사는 깊은 감동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영인 작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의 요소들에 주목한다. 극사실주의 회화 기법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캔버스에 공존시킨다. 수년간 나무, 자작 나무, 소나무 등을 소재로 작업했던 작가는 최근 몇 년 동안은 돌을 소재로 작업하고 있다. 그의 세심한 기법은 질감이 있는 돌을 사진처럼 완벽하게 만든다.

GALLERY**HAS**

Lee Young In b. 1973~

Lee Young-In

Moved to France in the early 2000s

Currently based in Paris

BFA in Fine Arts, Kyonggi University, Korea

Studied Painting at Éco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Montpellier, France

Lee Young-In is an artist who creates hyperrealistic paintings of stones found in nature. Through her meticulous depictions, she reinterprets the aesthetic value and significance of stones, capturing their essence directly onto the canvas. Formed over time by the forces of nature, these stones embody the long history and transformation of the Earth, each carrying its own silent narrative.

With their unique shapes and colors, the stones reflect a fundamental, organic beauty that has evolved naturally. Her hyperrealism evokes a profound sense of awe and reverence. Lee Young-In turns her gaze toward elements of nature often overlooked in daily life, drawing out their quiet presence with painterly precision. Having previously explored themes involving trees—such as birch and pine—for many years, she has focused more recently on stones. Her delicate technique renders the texture and weight of each stone with photographic clarity, inviting the viewer into an intimate encounter with the natural world.





GALLERY**HAS**



Existence

Acrylic on canvas
50 x 50 cm, 2024
400만원 \$2,721 USD



Existence

Acrylic on canvas
130 x 130 cm, 2023
3000만원 \$20,639

A Stone That Stirred the Stillness of My Heart

(By Hyojeong Kim, Busan Ilbo)

Lee Young-In's First Solo Exhibition in Korea

"Throwing a stone into a still lake..."

This expression is often used to describe a moment that triggers an unexpected ripple—an event that disrupts the quiet and spreads far beyond its point of origin. As I left the solo exhibition of artist Lee Young-In at Gallery HAS in Haeundae, Busan, this metaphor came vividly to mind. A single stone painted on canvas stirred a ripple within me—subtle, yet profoundly moving. Lee Young-In studied fine arts in Korea and moved to France in 2000 to further his practice. Based in Paris ever since, he has continued to build his career as a full-time painter, establishing a consistent body of work and gaining a loyal following across Europe. Yet, despite his recognition abroad, this exhibition in Busan marks his very first solo show in Korea, now in his early 50s. Before visiting the gallery, I viewed images of his work online. With no prior exhibitions in Korea, I wanted to study his background carefully. What I saw were hyperrealistic paintings of stones—so meticulously rendered that they could easily be mistaken for photographs. It was evident he possessed an extraordinary technical skill. Still, I approached the work with some skepticism, as photorealistic painting is no longer a major trend. But the moment I stood before his works in person at Gallery HAS, I was reminded: some art must be experienced firsthand. From the far end of the third-floor corridor of the LCT building, I glimpsed a large window displaying one of his paintings. At first glance, it appeared to be a sculptural installation—a few stones seemingly attached to a large canvas with no visible mounting. I was struck by the clean precision. Then I realized: the stones were not real. They were painted. His brushwork captures the texture, volume, and physical presence of stone so convincingly that many visitors assume they are actual objects.





Existence

Acrylic on canvas
162 x 112 cm, 2023
3400만원 \$23,236 USD

GALLERY**HAS**



Existence

Acrylic on canvas

50 x 50 cm, 2023

400만원 \$2,721 USD







Existence

Acrylic on canvas

90 x 90 cm, 2023

1550만원 \$10,593 USD





Existence

Acrylic on canvas

72.7 x 60.6 cm, 2023

800만원 \$5,468 USD



GALLERY**HAS**



Existence

Acrylic on canvas
50 x 50 cm, 2024
400만원 \$2,721 USD

내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 돌멩이

재불 이영인 작가 한국 첫 개인전
갤러리 하스에서 25일까지 열려
극사실적인 표현으로 돌멩이 그려
시간의 흔적을 보며 명상하는 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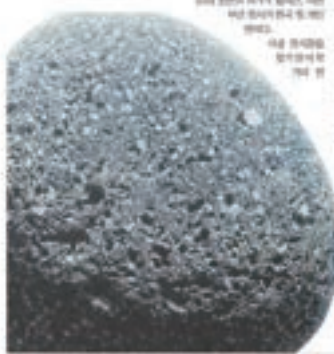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자주 어떤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구이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돌멩이의 크기가 크든 작든 호수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파동은 점점 커져 결국 건잡을 수 없이 호수 전체를 뒤덮는다. 일반적으로 파문을 일으킬만한 사건이나 계기를 의미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갤러리 하스에서 진행 중인 이영인 작가의 전시를 보고 나오며 문득 이 문구가 떠올랐다. 담담하게 캔버스에 돌멩이 하나를 그린 작가의 작품은 잔잔했던 내 마음에 이 정도의 큰 파동을 일으킨 것 같다.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한 후 2000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 이 작가는 줄곧 프랑스에서 전업 작가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갤러리 전시가 이어졌고 유럽의 고정 팬도 생겼지만, 정작 한국과 전시 인연이 닿지 않았다. 어느새 50대 초반의 작가가 됐지만, 이번 부산 전시가 한국 첫 개인전이다. 사실 전시장을 찾기 전 이 작가의 전시 이미지를 미리 접했다. 한국에서 전시 이력이 없어 사전 정보를 충실히 확인한 후 전시장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치 사진을 찍은 듯 극사실적인 표현으로 돌을 그렸다. 정말 사진 작품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돌을 완벽하게 표현한 걸 보면 일단 그림에 대한 재능을 뛰어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미 유행이 지난 극사실주의 회화에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갤러리 하스에서 직접 작품을 접하며 미술은 무조건 직접 봐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LCT상가 3층에 위치한 하스 갤러리는 반대쪽 복도 끝에서 전면 유리가 보였다. 전면 유리에 걸린 작품을 보며 순간 “회화 작가라던데 조각 설치 작업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큰 캔버스에 몇 개의 돌이 붙어있었다. 고정 장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저렇게 깔끔하게 돌을 붙였다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한 순간, 돌은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린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만큼 돌의 표면과 질감 부피감을 완벽하게 그렸다는 말이다. “갤러리 방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우연히 지나가던 분들이 돌을 왜 이렇게 붙였냐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실감 나게 그렸다는 뜻이겠죠. 다들 감탄하시더라고요.” 이영인 작가의 첫 개인전을 유치한 하스 갤러리 김현주대표의 설명이다.

내 마음에 파문 일으킨 돌멩이

예술가였던 작가 한국철 개인전
갤러리 하스에서 20일까지 열려
극사실주의 표현으로 돌멩이 그려
시각적 충격 보여 명상하는 느낌

“자연의 조각과 돌을 만나다.”
최근 부산의 명소를 순회하며
전시하는 한국철 작가의 개인전
‘자연의 조각과 돌’이 부산의
예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철 작가는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은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철 작가는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은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철 작가는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은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철 작가는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은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철 작가는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은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철 작가는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은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철 작가가 선보이는 작품 중 하나인 '자연의 조각과 돌' 전시 작품들

한국철 작가

한국철 작가는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은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철 작가는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은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철 작가는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은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자연의
조각과 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비밀이 있다. 실제 돌을 붙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돌을 사실적으로 그렸지만 찬찬히 쳐다보면, 돌의 그림자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다. 그림자에 살짝 다른 컬러가 들어가기도 하고 실제 그림자와 방향이나 크기가 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결국 작가의 의도와 메시지를 표현한 영역이다. 극사실주의적인 묘사에 추상 회화가 더해진 것이다. 작가의 그림은 굉장히 단순하다. 대부분 돌멩이 하나가 그려져 있다. 100호 정도의 큰 캔버스에도 6~7개 정도의 돌멩이가 그려져 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돌을 왜 그릴까. 이 작가는 “단순한 사물이 가장 미학적인 형태로 보일 때 가지는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돌은 인간만큼이나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가졌고 돌 하나 하나에 드리우는 그림자는 빛의 존재를 섬세하게 암시한다. 주변의 여백을 강조하는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고요하게 명상에 빠지는 것 같다. 작가는 “자연이 수백만 년 동안 쌓아 올린 돌의 견고함과 연속성을 통해 우리는 시간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비와 바람, 물과 흙에 의해 자연스럽게 변화해 온 돌은 대자연의 역사를 담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캔버스 중앙에 그려진 돌멩이 주변의 큰 여백들은 상상의 여지를 주는 것 같다. 이 작가의 그림은 확실히 기존 한국 화단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미술판에선 이 작가의 한국 첫 전시가 서울이 아니라 부산의 갤러리가 유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영인 작가의 ‘신비의 돌’ 전시는 25일까지 열린다.

_2024.10.13. 부산일보 기호정 기자

A Stone That Stirred the Stillness of My Heart

(By Hyojeong Kim, Busan Ilbo)

Lee Young-In's First Solo Exhibition in Korea

"Throwing a stone into a still lake..."

This expression is often used to describe a moment that triggers an unexpected ripple—an event that disrupts the quiet and spreads far beyond its point of origin. As I left the solo exhibition of artist Lee Young-In at Gallery HAS in Haeundae, Busan, this metaphor came vividly to mind. A single stone painted on canvas stirred a ripple within me—subtle, yet profoundly moving. Lee Young-In studied fine arts in Korea and moved to France in 2000 to further his practice. Based in Paris ever since, he has continued to build his career as a full-time painter, establishing a consistent body of work and gaining a loyal following across Europe. Yet, despite his recognition abroad, this exhibition in Busan marks his very first solo show in Korea, now in his early 50s. Before visiting the gallery, I viewed images of his work online. With no prior exhibitions in Korea, I wanted to study his background carefully. What I saw were hyperrealistic paintings of stones—so meticulously rendered that they could easily be mistaken for photographs. It was evident he possessed an extraordinary technical skill. Still, I approached the work with some skepticism, as photorealistic painting is no longer a major trend. But the moment I stood before his works in person at Gallery HAS, I was reminded: some art must be experienced firsthand. From the far end of the third-floor corridor of the LCT building, I glimpsed a large window displaying one of his paintings. At first glance, it appeared to be a sculptural installation—a few stones seemingly attached to a large canvas with no visible mounting. I was struck by the clean precision. Then I realized: the stones were not real. They were painted. His brushwork captures the texture, volume, and physical presence of stone so convincingly that many visitors assume they are actual objects.

"People passing by the gallery often ask us how the stones are attached," said Kim Hyun-ju, director of Gallery HAS. "They're always amazed to learn that they're just paintings." Yet, there's a subtle secret to his work. If you examine the shadows closely, something feels off—colors shift, shapes bend. The shadows do not follow the laws of light, and that deviation is intentional. It's where Lee introduces his personal language, blending hyperrealism with abstraction. These shadows carry meaning. They're not just technical details, but emotional and symbolic brushstrokes. His compositions are minimal—sometimes a single stone, sometimes six or seven spread across a large canvas. One might ask: why paint something as ordinary as a stone? The artist responds: "I wanted to capture the beauty that ordinary objects reveal when seen in their most aesthetic form." Like people, stones vary in size, shape, and character. The shadows cast by each stone subtly suggest the presence of light, while the surrounding emptiness heightens a sense of stillness. His paintings invite meditation. Time slows down. A quiet inner space opens. Lee explains: "Through the solidity and continuity of stones, formed over millions of years, we can sense the passage of time. Stones weathered by wind, rain, water, and earth embody the history of nature itself." The large negative space around each stone offers room for imagination. His work invites the viewer not only to look, but to reflect. "What do you see in this simple stone?" Each observer answers differently, making his paintings mirrors of the mind—echoing each viewer's memories, emotions, and thoughts. In portraying a stone—an overlooked fragment of nature—Lee meditates on time, existence, silence, and inner peace. His work brings a fresh, quiet force to the Korean art scene. The fact that his first Korean solo exhibition is not in Seoul but in Busan has already sparked interest among curators and collectors alike.

Lee Young-In's exhibition, "Mystical Stone," runs through May 25 at Gallery HAS.



Existence

Acrylic on canvas
90.9 x 72.7 cm, 2025
1200만원 \$8,203 USD





Existence

Acrylic on canvas
40 x 40 cm, 2023
300만원 \$2,051







Existence

Acrylic on canvas
60.6 x 72.7 cm, 2024
800만원 \$5,468

작가노트

돌 - 존재(existence)

돌은 시간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에 의해 형성된 돌들은 수천,
수백만 년 동안 지구의 변화와 역사를
지켜봐 왔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바라본 돌들은 깊은 감동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에게 고요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자연의 돌은 또한 우리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달합니다.
다양한 모양과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표면의 질감과 무게는
모두 독특한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작품은 자연에서 돌의 미적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표현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으며,

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무게감과 텍스처,
형태 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자연의 존재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일상적인 사물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미적인 가치를 얻게 되는데,
이는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Author's Note

Stone - Existence

Stones carry the traces of time.
Formed by the forces of nature,
they have silently witnessed
the Earth's transformations over
thousands—even millions—of years.

When seen through this lens,
stones evoke a profound sense of awe and reverence.
They offer us a moment of stillness and
a quiet sense of grounding.

Natural stones also embody the beauty of nature.
With their diverse forms, colors, textures, and weight,
each stone reveals a unique aesthetic presence.

In the midst of our fast-paced lives,
these works invite us to pause,
observe, and reconnect—with nature,
and with ourselves.

This series seeks to rediscover and express
the aesthetic value and meaning of stones in nature.
By preserving the inherent weight, texture,
and form of each stone, the artist explores
the essential meaning of existence in the natural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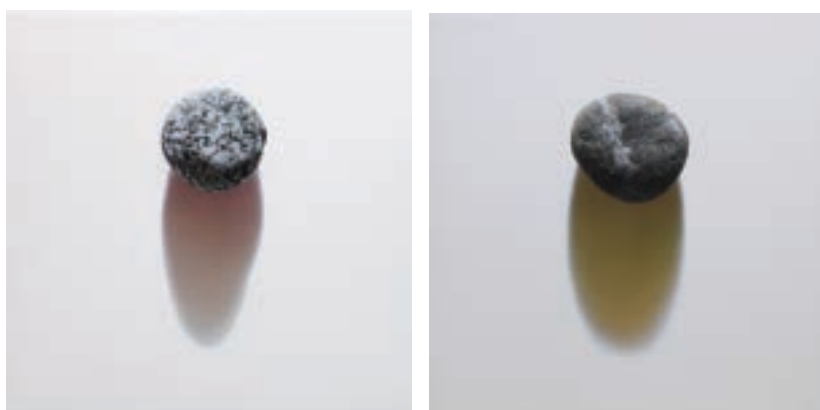
Through a renewed perspective
on the most ordinary of objects,
we are offered a new way of seeing—one that reminds
us of the hidden beauty in the everyday and encourages
a shift in how we perceive the world around us.





Existence

Acrylic on canvas
60.6 x 72.7 cm, 2024
800만원 \$5,468



Existence

Acrylic on canvas

40 x 40 cm, 2023

300만원 \$2,051



Lisa Lebel

이영인은 극사실주의 회화를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캔버스에 담아냅니다.
나무, 특히 소나무를 주제로 탐구하던 이영인 작가는 돌이라는 소재에서 인간과 닮은점을 발견합니다.
완벽에 가깝게 매끈하고 둥근 돌에서도 인간만큼이나 다양한 형태와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돌의 모양과 색,
그리고 그것이 소중하게 간직한
아름다움은 변화하고 퇴색합니다.
돌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대지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그 안에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자연 요소로 구성된 돌은
대지를 품고 땅 위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영인의 그림에서 돌만이 유일한 소재는 아닙니다.
돌 하나하나가 드리우는 중요한 그림자의 존재는
빛의 존재를 섬세하게 암시합니다.

대상만큼이나 그 주변의 여백을 강조하는 이 그림들은
명상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줍니다.
자연에 유기된 돌처럼 단순한 사물이 가장
미학적인 형태로 보일 때 가지는 아름다움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비움(여백)은 의도적으로 관객이
이 돌에 대해 상상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줍니다.
그의 세심한 테크닉은 돌의 질감을
사진처럼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그의 캔버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상에 자연스럽고
생생한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꼼꼼하게
물감을 입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누릴 수 있는 놀이 중에 아이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놀이로,
땅에서 쉽게 주울 수 있는 돌이지만 해변이나 공원,
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돌을 찾아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
몇 시간이고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Lisa Lebel

Lee Young In fait coexister sur ses toiles le visible et l'invisible,
à travers une peinture hyperréaliste.

Après avoir étudié le sujet de l'arbre et plus
particulièrement de l'arbre à pin,

Lee Young In a trouvé dans le sujet de la pierre
des similitudes avec l'homme.

Dans ces pierres presque parfaitement lisses et rondes,
on peut trouver autant de formes et
de variations que celles des êtres humains.

Avec le temps, sa forme, sa couleur,
et la beauté que tout deux conservaient précieusement,
se transforme et s'éteint.

Et la pierre, comme l'homme, transporte avec elle
l'histoire de la terre et conserve en elle les traces du temps.

Composée des éléments naturels les plus purs,
la pierre émerge du sol portant en elle la terre.

Mais dans la peinture de Lee Young In
la pierre n'est pas le seul sujet abordé.

L'importance de la présence d'une ombre portée
pour chaque pierre suggère avec délicatesse la présence de la lumière.

Ces peintures, qui mettent en avant autant
l'objet que le vide qui l'entoure, laissent une grande place à la méditation.
Un moment pour se questionner sur la beauté d'une
chose aussi simple qu'une pierre abandonner par la nature,
vue sous sa forme la plus esthétique.

Ce vide laisse volontairement de la place au regardeur
qui peut composer dans son imagination l'environnement de la pierre.
Sa technique minutieuse rend les pierres texturées
aussi parfaites qu'une photographie.

Un regard plus attentif à ses toiles révèle une
application scrupuleuse de la peinture pour rendre
à ses sujets une image naturellement vraisemblable.

Les enfants s'intéressent particulièrement à ce jeu offert par la nature.
Facile à trouver et ramasser au sol,
lequel de nous n'a pas passer des heures, sur la plage,
au parc ou à la montagne à chercher
la pierre la plus belle pour la garder précieusement ?

Lisa Lebel

The Silent Dialogue of Stone and Shadow

Through hyperrealist painting, Lee Young-In captures both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on canvas. Initially exploring themes of trees—particularly pines—Lee has recently turned his focus to stones, discovering in them reflections of the human condition.

Even in the most polished and rounded stones, he uncovers a diversity of forms and transformations akin to human experiences.

As time progresses, the shapes and colors of stones evolve, and their inherent beauty fades. Like humans, stones bear the history of the earth, preserving the passage of time within their forms. Composed of the purest elements of nature, stones emerge from the earth, revealing themselves upon the ground.

In Lee's paintings, however, stones are not the sole subjects. The shadows cast by each stone subtly suggest the presence of light,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what surrounds the object. These works highlight the surrounding space as much as the subject itself, inviting contemp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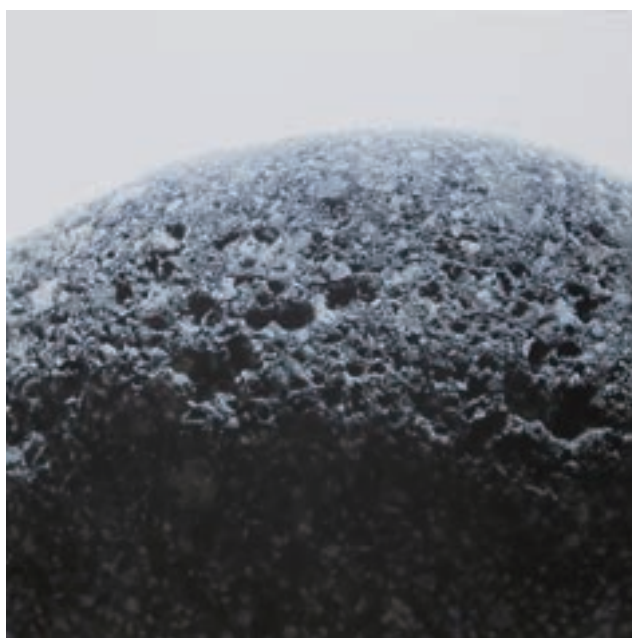
This intentional use of negative space allows viewers to project their own interpretations onto the stones. Lee's meticulous technique renders the texture of stones with photographic precision. A close examination reveals the careful application of paint, bringing natural and vivid imagery to life.

Among nature's simple pleasures is the childhood pastime of collecting stones—spending hours searching for the most beautiful ones along beaches, in parks, or on mountains. Lee's work evokes this universal experience, prompting us to reflect on the beauty found in simplicity and the passage of time.





GALLERY**HAS**



Exis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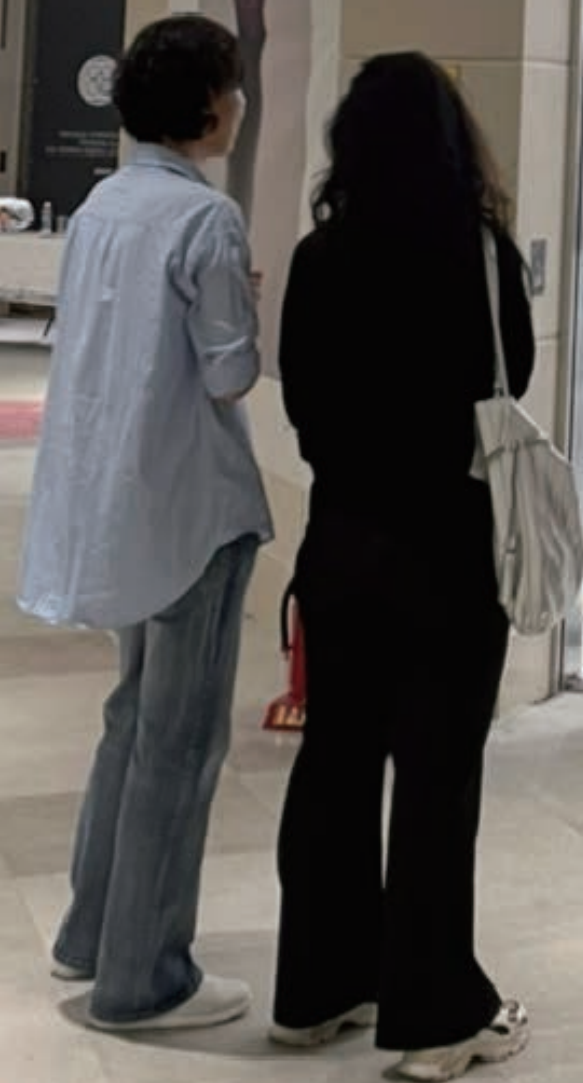
Acrylic on canvas
90 x 90 cm, 2023
1550만원 \$10,593



Existence

Acrylic on canvas
130 x 130 cm, 2023
3000만원 \$20,639 USD

GALLERYH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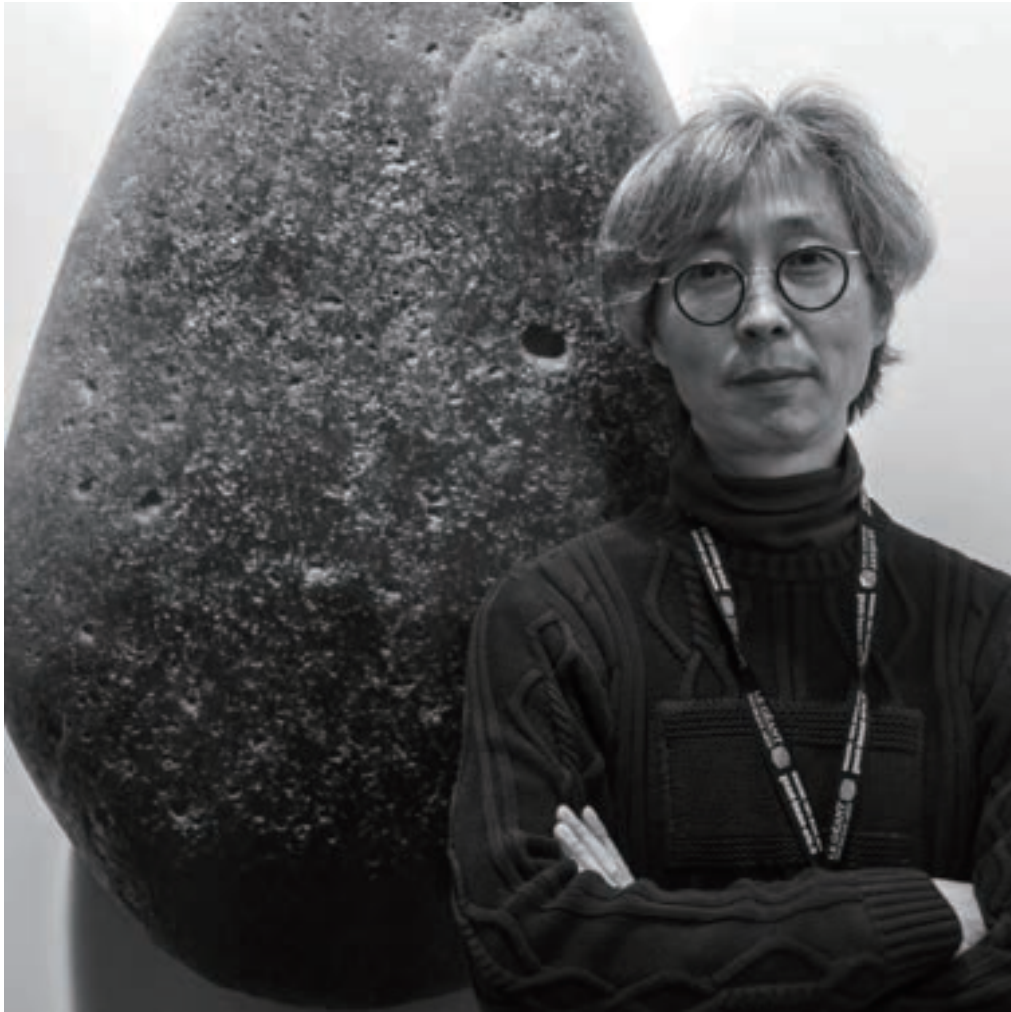




GALLERYHAS

갤러리 하스(Gallery HAS)는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30, LCT 포디움동 3051에 위치한 현대미술 갤러리이다. 2024년 2월 17일 독일 작가 조헨 샴벡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개관하였으며, 이후 유럽 및 국제 미술시장에서 활동하는 신진 및 중견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갤러리 하스는 아시아와 유럽, 국제 미술시장의 가교 역할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작가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통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Gallery HAS is a contemporary art gallery located at 3051, LCT Podium, 30 Dalmaji-gil, Haeundae-gu, Busan. It opened on February 17, 2024, with a solo exhibition by German artist Jochen Schambeck. Since then, the gallery has showcased works by emerging and mid-career artists active in the European and international art markets. Gallery HAS aims to serve as a bridge between the Asian, European, and global art scenes, presenting innovative works by artists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to introduce new trends in contemporary art.



이영인, b.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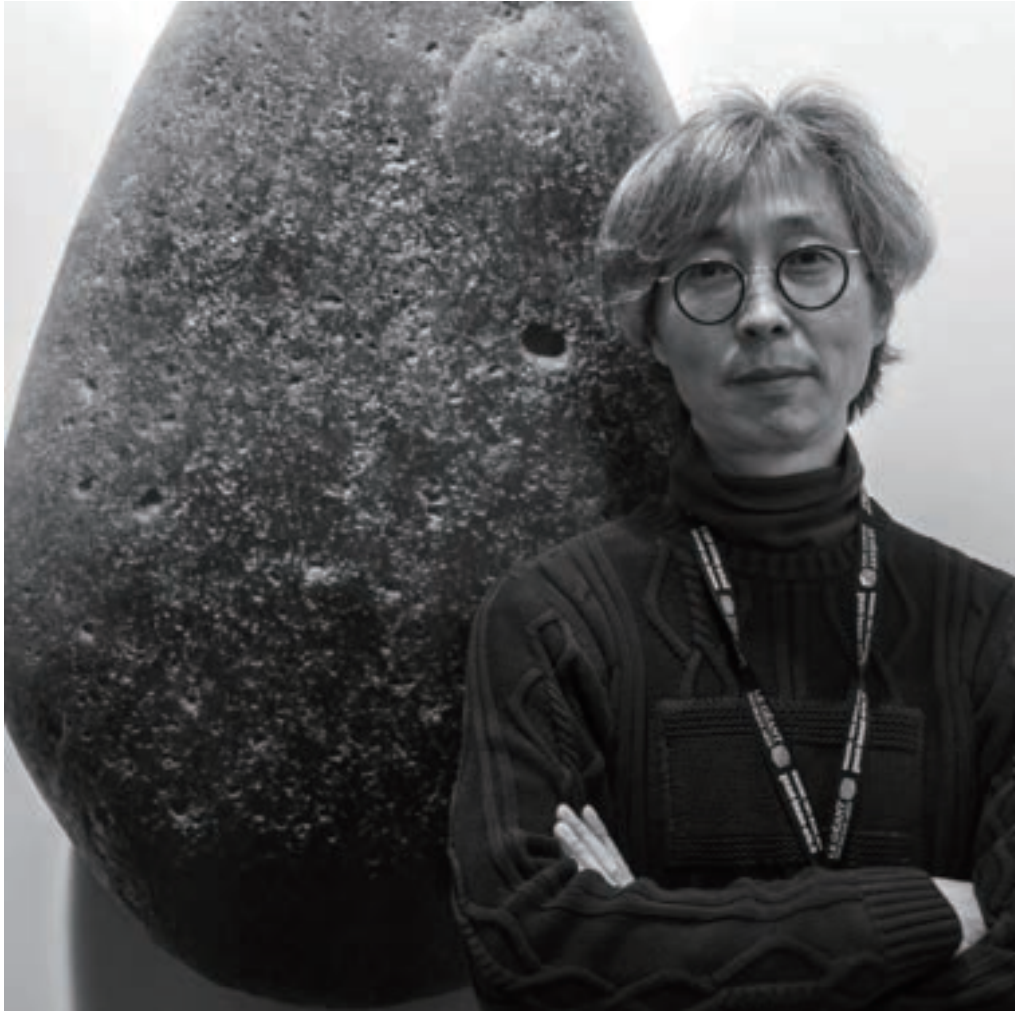
2000년 도불, 현재 파리에서 작업 중
경기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졸업
몽펠리에 시립 미술학교, 회화전공

SOLO EXHIBITION

- 2025 《L'existence》, 마그나 갤러리, 파리, 프랑스
- 2024 《Existence》, 갤러리하스, 부산
- 2018 《La Corée contemporaine》, 메종 데자르, 르 바까레스, 프랑스
- 2015 몽파르나스 갤러리, 파리, 프랑스 (2인전, Francesc BORDAS)
- 2014 《Nature》, 89 갤러리, 파리, 프랑스
- 2011 KASF, 서울 무역 컨벤션 센터, 서울
- 2009 La Galerie du Prsidal 초대전. Quimperl. 프랑스

GROUP EXHIBITION

- 2025 "BAMA 2025", 부산, 한국
 "아트부산 2025", 부산, 한국
 "Present_galleryhas' collection", 갤러리하스, 부산, 한국
- 2024 "보이지 않는 너머," 24 부부르, 파리, 프랑스
 "Journey", 아트 살롱드 아씨, 서울, 한국 (듀오)
 "이중 관점: 인류와 자연", 유네스코 본부,
 프랑스 파리의 세구르 홀
 "프리즘: 빛의 탐구", 앵커 박물관, 경기도 광주, 한국
 "아트 캐피탈 - 2024년 비교", 그랑 팔레 에phemère, 파리, 프랑스
- 2023 << 빛과 시간의 조각 >>, 올미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 자문박 재발견 >>, 서울 아트센터 도암갤러리, 서울, 한국
 << 5인 5색 >>, 갤러리 U.H.M, 서울, 한국
 Biennale d'Art Corée -France(한불 예술제), 생 망데 시청, 프랑스
 "Art Capital - Comparisons 2023", Grand Palais éphémère, 파리, 프랑스
- 2022 "The event of the night", 24보부르, 파리
 "KOREA IN THE SPOTLIGHT", 메종 데자르와 리디아 전시실, 르 바까레스, 프랑스
 "Art Capital - Comparisons 2022", Grand Palais éphémère, 파리, 프랑스
- 2021 << #sonamou >>, 24보부르, 파리, 프랑스
 << SONAMOU - 소나무 작가협회 30주년 특별전 >>, 주 프랑스 한국 문화원, 파리, 프랑스
 << side by side >>, 폴스타아트 페스티벌-스타필드 고양, 한국
- 2020 << 한국 • 프랑스 Korean Artists 특별전 >>, 쉐마미술관, 청주, 한국
 << Real & Fantasy >>, 폴스타아트 갤러리, 서울, 한국
 << 폴스타 아트 갤러리 개관전 >>, 폴스타아트 갤러리, 서울, 한국
- 2019 << Yeon연 (lien) : ondes immatérielles >>, 바스티유 디자인 센터, 파리, 프랑스
 << 한국작가 특별전 >>, BCI 전시홀, 마푸투, 모잠비크
- 2018 << SONAMOU Festival - 간 Gan (閒) >>, 바스티유 디자인 센터, 파리, 프랑스
 << Expérience d'artiste >>, 모나코 유네스코 산하 국제 조형예술협회, 모나코
- 2017 << Construction Time Again >>, 바스티유 디자인 센터, 파리, 프랑스
 << 삼인 삼색 >> 블랙스톤 이천 더 갤러리, 이천, 한국
- 2016 << Interface / Paris-L.A >>, 중앙갤러리, L.A, 미국
 << L'Aventure du trait >>, 수플로 갤러리, 팡테옹 소르본, 파리, 프랑스
- 2015 << 감각 교류 >>,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파리, 프랑스
 << 아름다운 다리 2 >>,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 공유 영역 >>, 한울 갤러리, 마드리드 한국 문화원, 마드리드, 스페인
 << 원 마인드 쇼 >>, 꾸방데코르들리에(Couvent des Cordeliers), 파리, 프랑스
- 2012 << Nature >>, 89 갤러리, 파리, 프랑스 (2인전)
 1998-1999 4번의 공모전 수상, 서울, 한국
 작품소장_프랑스 Quimper시, 프랑스 바까레스시, 정현 메세나, 블랙스톤.



LEE YOUNG IN, b.1973~

2000 Dobul, currently working in Paris

Graduated from Kyunggi University's Department of Art and Western Painting

Montpellier Municipal School of Art, Department of Painting

SOLO EXHIBITION

2025 « L'existence », The Magna Gallery, Paris, France

2024 « Existence », GALLERYHAS, Busan, Korea

2018 « La Corre Contemporary », Maison Desjar, Le Baccare, France

2015 Montparnas Gallery, Paris, France(2 characters, Francesco Bordas)

2014 « Nature », 89 Gallery, Paris, France

2012 « Nature », 89 Gallery, Paris, France (two-person exhibition) □

2011 KASF, Seoul Trade Convention Center, Seoul

2009 La Galerie du prcidial invitation. Wimpall. France

GROUP EXHIBITION

- 2025 "BAMA 2025", Busan, Korea
"아트부산 2025", Busan, Korea
"Present_galleryhas' collection", GALLERYHAS, Busan, Korea
- 2024 "Out of sight," 24 Vuvoor, Paris, France
"Journey", Art Salon de Aci, Seoul, Korea (Duo)
"Double Perspectives: Humanity and Nature," UNESCO headquarters, Segur Hall, Paris, France
"Prism: The Quest for Light," Anchor Museum, Gwangju, Gyeonggi Province, Korea
"Art Capital – 2024 Comparison," Grand Palais Efemere, Paris, France
- 2023 2023 « Light and the Pieces of Time », Olmi Art Space, Seoul, Korea
« Rediscovered Out of Advisory », Seoul Art Center Doam Gallery, Seoul, Korea
« 5 people 5 colors », Gallery U.H.M., Seoul, Korea Biennale d'Art Corée - France, Saint-Mande town hall, France
"Art Capital – Comparisons 2023", Grand Palais éphémère, Paris, France
- 2022 "The event of the night24 Bobur, Paris "KOREA IN THE SPOTLIGHT",
Maison Desjar and Lydia Exhibition Hall, Le Bacares,
France"Art Capital – Comparisons 2022", Grand Palais éphémère, 파리, 프랑스
- 2021 « #sonamou », 24Bobur, Paris, France « SONAMOU – Special Exhibi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Pine Writers Association »,
Korean Cultural Center in France, Paris, France« side by side »,
Polestar Art Festival-Starfield Goyang, Korea
- 2020 « Korea • Special Exhibition of Korean Artists in France »,
Shema Museum of Art, Cheongju, Korea« Real & Fantasy »,
Polestar Art Gallery, Seoul, Korea« Polestar Art Gallery Open »,
Polestar Art Gallery, Seoul, Korea
- 2019 « Yeon-yeon (lien): ounces immatérielles », Bastille Design Center,
Paris, France« Special Exhibition of Korean Artists »
BCCI Exhibition Hall, Maputo, Mozambique
- 2018 SONAMOU Festival, « – Gan (閒) », Bastille Design Center, Paris, France
« Expérience d'artiste, Monaco International Formative
Art under UNESCO »the Association of Monaco
- 2017 « Construction Time Again, Bastille Design Center, Paris, France»
« Three-person tricolor » Blackstone Icheon The Gallery, Icheon, Korea
- 2016 « Interface / Paris-L.A », Central Gallery, L.A., United States
« L'Aventure du Trait, Suplow Gallery, Pantheon Sorbonne, Paris, France»
- 2015 « Sensory Exchange »,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France
« Beautiful Bridge 2 », Hangaram Art Museum of Seoul Arts Center,
Seoul« Shared area » Hanul Gallery, Korean Cultural Center in Madrid,
Madrid, Spain« One Mind Show", Couvent des Cordeliers, Paris, France

1998–1999 4Four Contest Awards, Seoul, South Korea

GA



LERYHAS



Layout
GALLERY**HAS**

Text
French art critic Lisa Lebel, Hyojung Kim, Staff Reporter, Busan Ilbo

Copyright 2025
Lee Young In, GALLERY**HAS**

2025 GalleryHAS
@2025 by GALLERY**HAS**

Unit 3051, Podium Building, LCT
30 Dalmaji-gil, Haeundae-gu
Busan 48099, SOUTH KOREA

Hours	www.galleryhas.com
Tue-Sat	galleryhas3@gmail.com
1-6 PM	+82 10 3576 8037

GALLERY**HAS**



LEE YOUNG IN

GALLERY**HAS**